

광주 2조5천억 내년 예산 전남 4조2천억

광주, 광산업·일자리 창출 중점 투입

전남, 미래산업·복지·환경 집중 편성

광주시와 전남도는 12일 각각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광주시는 12일 2조5천830억원 규모의 2008년도 예산안을 확정, 시의회에 제출했다. 일반회계는 1조9천38억원, 특별회계는 6천792억원이며 올해 예산액 2조3천277억원에 비해 11%인 2천553억원이 늘었다.

예산 규모가 커지고 국고지원 비중이 늘어 재정자립도는 50.4%로 지난해 52.0%보다 2.2% 포인트 떨어졌다.

내년 예산은 부자도시·생산도시 실현, 문화수도 육성, 1등 사회복지 구현,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 등 6대 중점사업에 집중 투자된다.

주요 사업으로 진공산단 및 첨단산단 조성사업에 467억원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245억원, 광산업과 부품소재산업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에 300억원이 편성됐다.

또 저출산·고령화 대책과 기초생활 보장, 노령연금, 보육시설 확대, 빛고을을 실버타운 조성사업 등에 6천173억

■ 광주시·전남도 2008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	
- 생활수도 시설 및 일자리 창출	2천102억원
- 복지 및 매력적인 환경도시 건설	8천963억원
- 건설교통 및 대중교통 투자	5천729억원
- 민주정신 선양사업 및 지역 인재 육성	7천788억원
- 미래 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	839억원
- 관광 및 문화예술	2천201억원
- 농림·해양·수산	7천654억원
- 건설교통 및 주민안전	6천648억원
- 도민 건강·복지 및 환경	1조1천823억원

원이 계상됐다. 옛 구동체육관 부지에 들어서는 빛고을문화커뮤니티 건립 사업(473억원)과 문화수도 기반조성 사업(110억원),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101억원) 등도 역점 추진된다.

전남도는 이날 2008년도 예산안을 전년도보다 2천963억원(7.5%)이 증가한 4조2천331억원 규모로 편성해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전체 예산안 가운데 일반회계는 올 예산 3조1천978억 원보다 2천673억 원(8.4%)이 증가한 3조4천651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올 예산 7천390억 원보다 290억 원(3.9%) 증가한 7천

680억 원으로 편성됐다. 전남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방세 세수 증가에 힘입어 전년도 10.6%보다 0.4%포인트 상승한 11.0%를 기록했다.

전남도는 이번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미래산업 육성과 관광문화 개발, 친환경 생명산업 확

대, 생산적 복지증진과 SOO(사회간접자본) 확충 등 도민 소득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배분했으며, 소모성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해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하는데 중점을 뒀다.

특히 F1(포뮬러원) 대회 유치(31억 원), 전국체육대회 개최 준비(273억 원), R&D(307억 원) 등 미래산업 관련 사업 및 FTA(자유무역협정) 대응대책 추진 사업비 등을 우선적으로 예산에 편성했다.

/총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채희증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도, 무안공항 조기 활성화 건의

전남도가 지난 8일 개항한 무안공항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공항주변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이용객들의 편의 증대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서남권 거점국제공항 활성화 대책회의'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무안공항 경유 ▲무안~광주고속도로 조기 완공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도는 이날 회의에서 오송~목포구간으로 예정돼 있는 호남고속철도가 반드시 무안공항을 거치도록 계획을 조정해 줄 것을 재강조하기로 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

국제만평

- 김종우



“권력형 비리 성역없는 감사”

전윤철 감사원장 취임사

전윤철 감사원장은 12일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고위직 비리와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밭분해야 한다는 신념 아래 부패와 비리를 있는 곳은 어디든지 성역없는 감사를 통해 일별백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별인터뷰 6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뒤 감사원 대강당에서 가진 20대 감사원장 연임에 따른 취임식 취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정보공유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우리 사회 곳곳에 상존하는 고질적인 부폐고리를 청산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분위기 조성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주, 신생아 수 증가 ‘저출산 걱정’ 더나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신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을들어 3분기까지 신생아 수는 36만5천49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721명(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2006년(6천755명)의 4.25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외형 급성장 불구 ‘고용의 질’ 떨어져

■ ‘사회지표로 본 광주·전남 20년’

지역내총생산 광주 17조8천억 684% 늘어

지난 20년간 광주·전남지역은 지역내총생산(GRDP)과 경제활동 인구 등 경제의 외형적 규모가 크게 성장했지만 ‘고용의 질’은 뒤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12일 광주·전남 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지표로 바라본 광주·전남의 20년’을 분석한 결과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광주·전남은 지난 2005년

GRDP가 각각 17조8천199억원, 40조4천90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년 전인 1986년보다 각각 684%(15조5천480억원), 570%(34조4천472억원) 늘어난 것이다.

광주는 금융보험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GRDP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이 가운데 금융보험업은 2005년 1조3천196억2천만원으로, 1987년(812억7천만원)에 비해 16배 가량 급증했다. 전남도 2005년 광업·제조업의 GRDP가 11조6천475억5천만원에 달하면서 1987년(1조257억8천만원)보다 11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광주·전남은 같은 경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평균 취업시간이 줄고, 실업률은 꾸준히 높아지는 등 고용의 질은 ‘뒷걸음’하고 있다. 지난해 광주의 취업자

수는 61만9천명으로, 1989년보다 62.0%(23만7천명) 늘었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48.7시간으로, 같은 기간 8.2시간(14.4%) 줄었다.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 2005년 실업률이 각각 4.1%, 2.2%에 달하면서 1990년보다 각각 1.0%, 1.3% 높아졌다.

이와 함께 광주·전남은 지난 20년간 결혼은 줄고 이혼은 늘어나는 추세가 뚜렷했다. 광주는 2005년 총 혼인이 7천827건으로, 1990년에 비해 12.3%(1천94건) 줄었다. 반면 이혼은 3천127건으로, 같은 기간 40.4%(2천121건) 급증했다. 전남도 2005년 혼인과 이혼이 각각 9천984건, 4천394건으로 집계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노무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가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종철(맨오른쪽)·선우용녀(왼쪽) 흥보대사로부터 2007 크리스마스 쌀을 전달받은 뒤 김성규 대한

결핵협회장에게 성금을 전달하고 있다. /연합뉴스

‘삼성떡값’ 전·현직 고위검사 3명 공개

천주교 사제단… 의혹 인사들 “사실 무근”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은 12일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천주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 이귀남 대검 중수부장, 이종백 국가평생위원장(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3명이 이른바 삼성의 ‘떡값 리스트’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떡값 검사’로 지목된 이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한편, 법적 대응을 하겠

다고 밝혔다. 그들은 “이와 관련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는 삼성그룹측으로부터 어떤 청탁이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김경수 대검 홍보기획관은 이날 “이귀남 중수부장이 김 변호사와 대화 선우용녀 사이인 것은 맞으나 서로 만나서 식사 한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가까운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신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을들어 3분기까지 신생아 수는 36만5천49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721명(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2006년(6천755명)의 4.25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신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을들어 3분기까지 신생아 수는 36만5천49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721명(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2006년(6천755명)의 4.25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신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을들어 3분기까지 신생아 수는 36만5천49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721명(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2006년(6천755명)의 4.25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신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을들어 3분기까지 신생아 수는 36만5천49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721명(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2006년(6천755명)의 4.25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 켜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신망 자료를 집계한 결과, 을들어 3분기까지 신생아 수는 36만5천492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만8천721명(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이 같은 증가규모는 2006년(6천755명)의 4.25배에 달

하는 수준이다. 광주의 경우 지난 3분기까지의 신생아가 1만989명으로 지난 해 같은 기간보다 626명(6.0%) 증가했다. 광주지역의 신생아 수는 밀레니엄 베이비 출산 붐이 일었던 2000년의 이상 증가를 제외하면 사실상 1995년 이후 11년만인 2006년에 처음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며, 올해에는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다. 신생아 증가가 일시적 현상이 아닌 사회적 주제변화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되는 대목이다.

3분기 1만1천명 6% 늘어

최근 들어 신생아 수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저출산 해소에 청신호가